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미래적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제도혁의 힘, 창조경제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11월 1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1.10일(화) 오전 06시 이후 보도가능)

문의 :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044-203-5620), 권영희 서기관(5621), 서미주 사무관(5625)
FTA정책기획과 김완기 과장(044-203-5740), 임국현 서기관(5741)
TPP대책단 여한구 과장(02-3497-1783), 송지현 사무관(02-3497-1787)

# 산업부,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통상전문가, 주한외교공관, 국내·외투기업 등 400여명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를 개최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0주년의 시점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의 확산으로** 등장한 세계 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컨퍼런스에, **해외 통상전문가와 주한 외교공관의 대거 참석으로**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 '15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 >**

▶ 일시/장소 : '15.11.10(화) 10:00~18:00, 광화문 그랑서울 3F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 산업부, 무역협회 / 대외경제연구원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무역협회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사무차장(Frederick Agah),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Bruce Hirsh), 주한 외교공관(EU·중국·일본·캐나다 등 약 40개국 대사·공사), 국내·외투기업, 외국상의 등 400여명
▶ 주제 : "세계무역체제의 신 패러다임(A New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 주요 연사 : 우태희(산업부 통상차관보), 이일형(대외경제연구원 원장), Frederick Agah(WTO 사무차장), Gerhard Sabathil(주한EU대표부 대사), Clare Fearnley(주한뉴질랜드대사), Ravi Kewalram(주한호주부대사), 저우창팅(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 Amy Jackson (AMCHAM 대표), Alan Deardorff(미시간대 교수), 최병일(이화여대 교수) 등



□ 윤상직 장관은 오찬사에서 "**최근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 타결로 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RCEP) 등 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10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하고

○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을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는 등 그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온 바, 앞으로도 **지역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 (1세션) 메가 FTA와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

○ **알린 디어도프(Alan Deardorff)**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함

- WTO는 **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메가 FTA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 (2세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

○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함

- 특히,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RCEP, 나아가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의 TPP 참여자격에 대해서, **찰스 피니(Charles Finny)** 손더스 운스워쓰(Saunders Unsworth)사 파트너는 **한국이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고 평가함

- 한국의 TPP 참여전략으로서, 우선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함

○ **후카가와 유키코**(深川 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TPP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 (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 **천원링**(陈文玲) 중국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이니셔티브는 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장의 통합 그리고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② 참여 국가들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지역통합을** 권장하며, ③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경제통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참여 국가들간 통관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장은 **미국의 시각에서 일대일로는 관심 유인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① 미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② 구체적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 **기무라 후쿠나리(木村 福成)** 일본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의 걸림돌은 자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개발 가능성**이라고 분석함

□ 산업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 앞으로 동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및 한국통상을 논의하는 전문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서덕호 과장(☎ 044-203-5620), 서미주 사무관(☎ 044-203-56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 첨부1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

### 1. 행사개요

□ **(일시/장소)** '15.11.10(화) 10:00~18:00 / 광화문 그랑서울 3F 나인트리 컨벤션 그랜드볼룸

□ **(주최/주관)** 산업부, 무역협회 / KIEP

□ **(참석자)** 산업부 장관, WTO 사무차장, 주한 외교공관, 외국상의 국내·외투기업,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담당자 등 약 400여명

□ **(주제)** "세계무역체제의 新패러다임(A New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

- ○ (1세션) 메가 FTA와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
- ○ (2세션) TPP : 한국의 現 위치와 대응방안
- ○ (3세션) 중국 일대일로 전략 :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2. 주요 행사일정

| 시간 | 프로그램 |
|---|---|
| 09:50~10:00 | 포토 세션(Photo Session) |
| 10:00~10:20 | 개회식 |
| 10:20~12:10 | (세션1) Mega-FTAs와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 |
| 12:10~13:40 | 오찬 |
| 13:40~15:40 | (세션2)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
| 16:00~17:50 | (세션3)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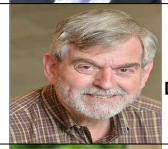
## 3. 컨퍼런스 세부내용

| Time | Program |
|---|---|
| 9:00～10:00 | **등록** |
| 10:00～10:20 | **개회식(Opening Ceremony)**<br>· 개회사: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br>· 환영사: 이일형 (KIEP 원장)<br>· 축사: Frederick Agah (WTO 사무차장) |
| 10:20～12:10 | **(Session I) 메가 FTA와 국제무역체제의 변화** |
| | · 사회자: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br>· 발표자: Alan Deardorff (미시간대 교수)<br>· 토론자: Frederick Agah (WTO 사무차장)<br>Ravi Kewalram (주한 호주 부대사)<br>Kay Segler (난양대 교수, 前 BMW아시아 사장)<br>최석영(외교부 본부대사)<br>정철 (대외경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 실장) |
| 12:10～13:40 | **오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찬사) |
| 13:40～15:40 | **(Session II)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
| | · 사회자: 안덕근 (서울대 교수)<br>· 발표자: Peter Petri (브랜다이스대 교수)<br>Charles Finny (Saunders Unsworth사 파트너)<br>Fukagawa Yukiko (와세다대 교수)<br>· 토론자: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br>Clare Fearnley (주한 뉴질랜드 대사)<br>Amy Jackson (AMCHAM 대표)<br>김극수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
| 15:40～16:00 | 휴식(Coffee Break) |
| 16:00～17:50 | **(Session III)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 | · 사회자: 이일형 (대외경제연구원 원장)<br>· 발표자: Charles E. Morrison (미 하와이 동서센터장)<br>Fukunari Kimura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수석 이코노미스트)<br>천원링 (중국국제교류중심(CCIEE) 총경제사)<br>· 토론자: Gerhard Sabathil (주한 EU대표부 대사)<br>정영록 (서울대 교수, 전 주중 공사)<br>저우창팅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br>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상임연구원) |



## 첨부2 주요 연사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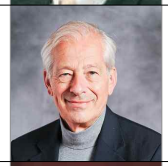
### □ 세션 1

| 세션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학 력 | 주요경력 |
|---|---|---|---|---|---|
| 사회자 |  | 최병일 | 이화여대 교수<br>('97년 ~ ) | · 예일대 경제학 박사<br>· 예일대 경제학 석사<br>· 서울대 경제학 학사 | · 前 한국경제연구원 원장<br>· 前 이대 국제대학원 원장<br>· 前 한국협상학회 회장 |
| 발표자 |  | 알란<br>디어도프 | 미시건대 교수<br>(경제학,<br>공공정책학) | · 콘웰대 경제학 박사 | · 現 미시간대<br>제럴드포드 공공정책대학원<br>부 원장 |
| 토론자 |  | 프레데릭<br>아가 | WTO 사무차장<br>('13.10월 ~ ) | · 조스대 경제학 박사<br>· 아마두벨로대 경제학 석사<br>· 아마두벨로대 이학사 | · 前 WTO 나이지리아 대사<br>· 前 WTO 각료회의 의장 |
| 토론자 |  | 최석영 | UN<br>중앙긴급대응기금<br>자문위원<br>('15.10월 ~ ) | ·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br>· 서울대 독어독문학 학사 | · 제13회 외무고시 합격<br>· 前 주 제네바 대사<br>· 前 외교부 FTA 교섭대표 |
| 토론자 |  | 라비<br>케왈람 | 駐韓<br>호주 부대사<br>('14.9월 ~ ) | · 시드니대 법학 석사<br>· 시드니대 경제학 학사 | · 前 호주 외교부 장관<br>수석 자문위원<br>· 前 호주 외교부<br>무역협상실 서기관 |
| 토론자 |  | 정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br>아시아·태평양<br>실장 | ·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br>· 서강대 경제학 석사 | · 前 조지아공대 경제학 교수<br>· 前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br>수석 이코노미스트 |
| 토론자 |  | 케이<br>세글러 | 난양대 교수 | · 만하임대 경영학 박사<br>· 만하임대 경영학 석사 | · 前 BMW 아시아 대표<br>· 前 슈투트가르트대<br>부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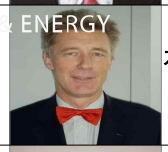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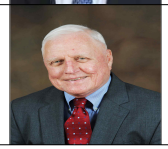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 □ 세션 2

| 세션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학 력 | 주요경력 |
|---|---|---|---|---|---|
| 사회자 |  | 안덕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 미시건대 경제학박사<br>· 서울대 국제경제학 학사 | · 現 무역위원회 위원<br>· 現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
| 발표자 |  | 피터 패트리 | 브랜다이스대 국제금융 연구교수 | ·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br>· 하버드대 경제학 석사 | · 前 OECD, World Bank 객원 연구원<br>· 現 East West Center 수석 연구위원 |
| 발표자 |  | 유키코 후카가와 | 와세다대 교수 | · 와세다대 경영학 박사<br>· 예일대 국제개발정치학 석사 | · 前 도쿄대 교수<br>· 前 JETRO 근무 |
| 발표자 |  | 찰스 피니 | Saunders Unsworth (뉴질랜드 공공정책 컨설팅 기관) 파트너 | · 웰링턴 빅토리아대 학사 | · 前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근무<br>· 前 중-뉴 FTA 수석 협상대표<br>· 前 웰링턴 상의 대표 |
| 토론자 |  |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15. 3월 ~ ) | · 경희대 경영학 박사<br>· UC 버클리대 경제정책학 석사<br>· 서울대 행정학 석사 | · 제27회 행정고시 합격<br>· 前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
| 토론자 |  | 클레어 펀리 | 駐韓 뉴질랜드 대사 ('15. 1월 ~ ) | | · 前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북아시아국 국장<br>· 前 주 대만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소장 |
| 토론자 |  | 에이미 잭슨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09. 9월 ~ ) | · 포모나 대학교 학사<br>·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석사 | · 現 아태지역 미상공회의소회의 부회장<br>· 前 미 무역대표부(USTR) 부차관보(한국, 일본 총괄) |
| 토론자 |  | 김극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15. 2월 ~ ) | · 루이지애나 주립대 경제학 박사<br>· 루이지애나 주립대 경제학 석사 | · 前 한국무역협회 기획조정실장<br>· 前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장 |



## □ 세션 3

| 세션 | 성 명 | | 소속 및 직위 | 학 력 | 주요경력 |
|---|---|---|---|---|---|
| 사회자 |  | 이일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13.7월 ~ ) | · 워릭대 경제학 박사<br>· 에식스대 경제학 석사<br>· 런던정경대 경제학 학사 | · 前 IMF 중국사무소장<br>· 前 외교부 G20 국제협력대사 |
| 발표자 |  | 천원링 | 중국국제교류중심 (CCIEE) 총경제사 | | · 現 북경대학교 교수<br>· 現 중국마케팅협회 부회장 |
| 발표자 |  | 찰스 모리슨 | East West Center 소장 ('98.8월 ~ ) | ·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학 박사 | · 前 태평양경제협력 회의 의장<br>· 前 일본국제교류센터 연구원 |
| 발표자 |  | 후쿠나리 키무라 |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 수석 이코노미스트 ('08년 ~ ) | ·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br>·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사 | · 前 게이오대 교수 |
| 토론자 |  | 게르하르트 사버틸 | 주한 EU대표부 대사 ('15년~) | · 독일 루드윅 막시밀리안대 | · 前 EU 대외관계청 동북아시아 태평양국장 |
| 토론자 |  | 정영록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01년 ~ ) | · 서던캘리포니아주립대 박사 | · 前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br>· 前 현대중국학회 회장 |
| 토론자 |  | 저우창팅 | 주한 중국대사관 경제공사 ('11년~) | · 조선 평양 경공업대 | · 前 중국 상무부 아시아국 참사관 |
| 토론자 |  | 클로드 바필드 | 미국기업연구소 상근연구위원 ('82년 ~ ) | · 노스웨스턴대 박사<br>· 노스웨스턴대 석사 | · 前 미 무역대표부 자문위원 |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 첨부3 주요 발표 내용

### 제 1 세션 발표

**- The Changing Landscape of Trade Negotiations**



**알랜 디어도프 / 미시간대학교 교수**
**Alan DEARDORFF / Professor, University of Michigan**

-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다자협상에 진전이 없자 WTO 내외부에서 다양한 협상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들이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어 TPP, TTIP, RCEP 등의 협정을 시작
- FTA의 증가로 긍정·부정적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Mega-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균형이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음
- 향후 WTO는 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한 중요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Mega-FTA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수국간 추가 협정을 촉진할 전망

### 제 2 세션 발표 1

**- The TPP milestone: trade policy in the Asia-Pacific**



**피터 페트리 /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
**Peter PETRI / Professor, Brandeis University**

- TPP는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데이터 흐름 자유화를 위한 높은 기준을 수립하고, 규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칙을 제정하고 환경과 노동 관련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
- 한국의 TPP 가입으로 한국은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세계 무역정책의제의 중심에 위치할 수 있는 등 득이 많고 실은 거의 없음
- 향후 한국은 TPP 회원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



### 제 2 세션 발표 2



**찰스 피니 / Saunders Unsworth(뉴질랜드 공공정책 컨설팅기관) 파트너**
**Charles FINNY / Partner, Saunders Unsworth**

- 다른 국가들이 TPP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TPP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며, 한국은 TPP 가입 요건에 매우 충실히 부합
- 한국이 TPP의 최초이자 유일한 신규 참가국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수의 다른 신규 가입국과 함께 가입하는 것이 나은지 한국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들을 고찰하고자 함
- 한국은 앞으로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RCEP, 나아가 FTAAP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제 2 세션 발표 3

**- Economic Integration, Growth, and Cooperation: Japan and Korea in post TPP era**



**후카가와 유키코 / 와세다대학교 교수**
**YuKiko FUKAGAWA / Professor, Waseda University**

- TPP는 비즈니스 글로벌화를 위한 새롭고 종합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내국민대우, 지적재산권의 보호, 누적 원산지 규정 등이 이에 포함됨
- TPP의 높은 관세 철폐 기준은 향후 한국의 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한일 FTA의 우회로가 생겨나 한일중 FTA와 RCEP의 수정이 필요하게 될 것
- TPP는 일본의 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성숙한 경제와 아시아와의 연계에 있어 변화를 가져올 것, 이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 간 양자간 통합은 국경을 넘어선 IoT를 포함한 지식 서비스 산업 집적을 지향할 필요
- 또한 양국간 경제협력은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 완화 등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

## 제 3 세션 발표 1

### - Change in China's Foreign Policy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천원링 / 중국경제교류중심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부센터장**
**Wenling CHEN / Chief Economist and Deputy Directors, CCIEE**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1)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나 시장의 통합 그리고 경제 요소들의 질서있고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2) 일대일로 상의 국가들이 경제 정책을 함께 조율하고 높은 수준으로 폭넓고 깊이 있는 지역적 통합 수행을 권장하며, 3)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균형잡인 지역적 경제 통합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 일대일로의 야심 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양자 협력의 역할을 늘리는 동시에 다자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무역자유화와 투자 원활화 촉진을 위해 일대일로 지역 국가들의 통관절차 메커니즘 설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 제 3 세션 발표 2

### - One Belt, One Road (OBOR): American Perspectives



**찰스 모리슨 / 하와이 동서문화센터 센터장**
**Charles MORRISON / President, East-West Center**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광대하며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미국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일대일로'가 미국의 중요한 안보 또는 경제에 직접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종합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앙아시아의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과 활용방법의 불확실한 것이 미국 관심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일대일로'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심이 있음
- 한편, '일대일로'의 미래가 국제연합과 미국의 핵무기 확산방지나 침략 제재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일대일로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일 수 있음



## 제 3 세션 발표 3

### - The Impact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on Changes in the Trading Environment in East Asia



**기무라 후쿠나리 /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
**Fukunari KIMURA / Chief Economist, ERIA**

- AIIB와 일대일로를 포함한 중국 인프라개발 과제로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다양한 토의와 논의가 생겨났으며, 자금 부족 보다는 수익성 있는 인프라사업을 구축하는 방안이 주된 걸림돌로 작용
- 이 문제에는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는 방법에 관한 것과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때 프로젝트의 일부가 수익성을 갖도록 적절히 설계하는 방법에 관한 것 등 두 가지 측면이 있음
-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아시아종합개발계획 2.0(Comprehensive Asia Development Plan)을 참조하여 인프라개발의 두 가지 측면을 조명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11 14:07:32